

어린 왕자



나는 어린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따라 떠나왔다고 생각한다.

어린 왕자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지음
송태효 옮김

여기에 실린 그림은 생텍쥐페리 자신이 그린 그림이다.

새로운사람들

「어린왕자」는 생텍쥐페리의 「사람들의 땅」 후편이다.

어린 왕자

초판1쇄 인쇄 2014년 4월 18일

초판1쇄 발행 2014년 4월 22일

지은이 앙투안 마리 로제 드 생텍쥐페리

옮긴이 송태호

펴낸이 이재욱

펴낸곳 (주)새로운사람들

디자인 이즈플러스

마케팅·관리 김종림

© 어린 왕자 인문학당, 2014

등록일 1994년 10월 27일

등록번호 제2-1825호

주소 서울 도봉구 덕릉로 54가길25

전화 02)2237-3301, 팩스 02)2237-3389

이메일 ssbooks@chol.com

홈페이지 <http://www.ssbooks.biz>

ISBN 978-89-8120-493-8 (04810)

ISBN 978-89-8120-492-1 (세트)

* 책값은 뒤표지에 씌어 있습니다.

레옹 베르트에게

이 책을 어떤 어른에게 바친 데 대해 아이들에게 용서를 빈다. 내게는 그럴만 한 각별한 사정이 있다. 이 어른이야말로 세상에서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정이 있다. 이 어른은 모든 것을, 심지어 아동 도서도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사정은 이렇다. 이 어른이 지금 프랑스에서 굶주린 채 추위에 떨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어른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 이 모든 사정도 성에 차지 않는다면 어린 시절의 그에게 이 책을 바치겠노라. 어른들도 한때는 모두 어린아이였으니까. (하기야 이 사실을 기억하는 어른은 거의 없지만 말이다.) 그래서 헌사를 이렇게 수정하노라.

어린아이 시절의
레옹 베르트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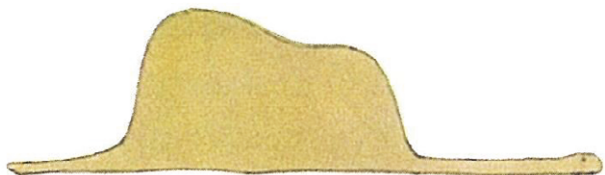
I



여섯 살 시절 나는 『모험기』라는 제목의 원시림 이야기책에서 멋진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다. 맹수를 삼키는 보아 뱀 그림이었다. 위의 그림은 그걸 옮겨 그려 본 것이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 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리고는 꼼짝달싹 못 한 채 먹이가 소화될 때까지 여섯 달 동안 잠만 잔다.”

그래서 정글 속 모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는 혼자서 색연필로 내 생애 첫 번째 그림을 그려 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내 그림 1호는 이러했다.



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 주고 그림이 무섭지 않은지 물었다. 어른들은 “모자가 뭐가 무서운데?”라고 답했다.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코끼리를 소화하는 보아 뱀 그림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 뱀 속을 그렸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설명이 필요한 법이다. 나의 그림 2호는 이러했다.



어른들은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보아 뱀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와 역사와 산수와 문법에 관심을 가지라고 충고했다. 이런 연유로 그만 나는 나이 여섯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 버렸다. 내 그림 1호와 그림 2호의 실패로 그만 기가 꺾인 탓이다. 어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럴 때마다 설명을 해 주어야 하니 어린 아이들로서는 피곤한 일이다.

그렇게 나는 다른 직업을 택해야 했기에 비행기 모는 법을 배웠다. 거의 안 가 본 데 없이 세계 곳곳을 날아다녔다. 지리 공부는 진정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줄 알았다. 야간 비행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지리는 정말 쓸모 있는 법이다.

이렇게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 나는 수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수많은 만남을 가졌다. 어른들 세계에서 많이 살았다는 얘기다. 나는 그들을 매우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어른들에 대한 견해가 그다지 나아진 것도 아니다.

어른들 가운데 어느 정도 명석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늘 지니고 다니던 내 그림 1호로 시험해 보았다. 그가 정말 헤

안을 지냈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언제나 돌아온 답은 ‘어, 모자잖아’였다. 그러면 나는 보아 뱀 이야기도, 원시림 이야기도, 별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그 수준에 맞게 말을 꺼냈다. 트럼프, 골프, 정치, 벡타이 이야기 말이다. 그러면 어른들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무척 만족스러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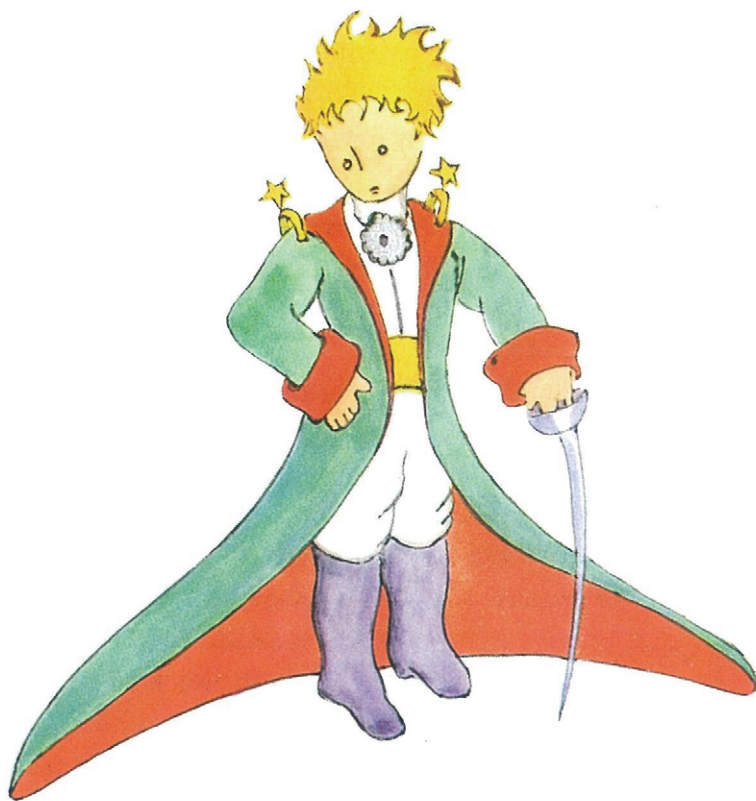
II

나는 이렇게 진심어린 대화를 나눌 사람 하나 없이 고독하게 살았다. 육 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킬 때까지도. 엔진 내부 어딘가가 파손되어 기사도 승객도 없이 혼자서 어려운 수리에 나선 참이었다. 나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물도 겨우 일주일 치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첫날밤은 사람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수면을 취했다. 대양 한가운데 난파당해 표류하는 뗏목 위의 표류자보다 훨씬 더 외로웠다. 그러니 동틀 무렵 이상야릇한 꼬마목소리에 깨어난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라.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저...양 한 마리만 그려 줘!”

“뭐라고?”



이 그림은 내가 나중에 그려낸 그의 초상화 가운데 가장 잘된 초상화이다.

“양 한 마리 그려 달라니까...”

벼락이라도 맞은 듯 나는 소스라쳐 일어났다. 열심히 눈을 비비고 주위를 조심스럽게 둘러보았다. 그랬더니 정말 범상치 않은 모습의 어떤 어린 녀석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그림은 내가 나중에 그려낸 그의 초상화 가운데 가장 잘된 초상화다. 그러나 당연히 내 그림은 모델보다 훨씬 덜 매력적이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여섯 살 때 어른들 때문에 기가 꺾여 화가로서의 내 직업에서 멀어져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 뱀 말고는 그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깜짝 놀라 두 눈을 부릅뜨고 유령처럼 출현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사람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라. 그런데 녀석은 길을 잃었다거나, 피곤함에 시달리거나, 굶주림에 시달리거나, 목마름에 시달리거나, 두려움에 시달린 것 같지도 않았다. 사람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기색이라곤 전혀 없었으니까. 마침내 겨우 입을 열어 그에게 말을 건넸다.

“그런데...여기서 뭐 하니?”

그러자 그는 매우 진지한 이야기라도 하듯이 아주 천천히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아저씨...양 한 마리만 그려 줘...”

신비로움이 너무 강렬하면 순순히 따르게 마련이다. 사람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죽음과 대면한 처지
치고는 영 터무니없는 일처럼 여겨졌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내가 특별히 공부한
것이라곤 지리, 역사, 산수, 문법이라는 생각이 들자 (조금은
기분이 언짢아져)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녀석에게 털어냈
다. 그는 대답했다.

“상관없어. 양 한 마리만 그려 줘.”

한 번도 양을 그려 본 적이 없었으므로 나는 그를 위해 내
가 그릴 수 있는 유일한 두 그림 가운데 하나를 다시 그려 주
었다.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 뱀 그림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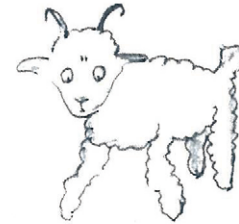
그러자 녀석은, “아니, 아니, 보아 뱀 속 코끼리는 싫어.
보아 뱀은 무지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아주 거추장스럽
고, 내 사는 곳은 아주 좁아. 난 양이 필요해. 양을 그려 줘!”
라고 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렸다.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녀석은 이렇게 말했다.

“안 돼! 이진 벌써 병
이 심한데. 다시 하나
그려 줘.”

나는 또 그렸다.



내 친구는 너그럽고 상
냥하게 미소 지었다.

“봐... 이진 양이 아니라
숫양인 걸. 뿔이 달렸잖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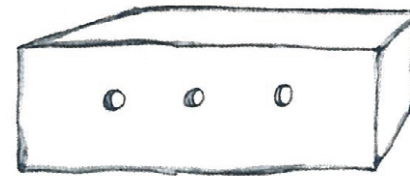
그래서 또다시 그렸다.

그러나 그것도 앞의 그림들
처럼 뿔짜를 놓는 것이 아닌가.

“이진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이 필요해.”

나는 서둘러 엔진을 분해해
야 했기에 그만 참지 못하고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대충 끼적
거리 주고는 한마디 툭 던졌다.

“이진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상자 안에 있어.”



그러자 내
어린 심사위원
의 얼굴이 환
히 밝아지는
걸 보고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챙겨

줘야 하나?”

“왜?”

“우리 집은 아주 작거든…”

“틀림없이 충분할 거다. 네게 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그는 그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다지 작지도 않은걸… 어라! 잠들었네…”

이렇게 어린왕자를 알게 되었다.



III

한참이 지나서야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정작 내 질문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다. 우연히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 덕분에 점차 모든 것이 밝혀졌다. 가령, 내 비행기를 처음으로 본 그는(내 비행기는 그리지 않으려다. 그것은 나에게서는 너무도 복잡한 그림이니까) 내게 이렇게 물어 왔다.

“이 물건은 뭐야?”

“이건 예사 물건이 아니야. 날아다니거든. 비행기지. 내 비행기란다.”

그리고 내가 날아다니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자 우쭐해졌다. 그러자 그가 소리쳤다.

“뭘,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이지?”

“그럼.” 하고 나는 겸손하게 답했다.

“아! 거참 재미있네…”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 매우 멋지게 웃음을 터뜨렸는데 내 기분은 몹시 언짢았다. 다른 사람들이 내 불행을 심각하게 받아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말을 계속했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온 거네! 어느 별인데?”

나는 곧바로 수수께끼 같은 그 존재 속에 한 줄기 서광처럼 무언가 실마리가 잡히는 것 같아 불쑥 물어보았다.



“그러니까 다른 별에서 왔다 이거지?”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비행기만 바라보며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하기야 이걸로는 그렇게 멀리서 올 수도 없었겠네…”

그러고는 한참 동안 깊이 몽상에 잠겼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 준 양을 꺼내서는 그 보물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다른 별들’에 관한 알 듯 말 듯 한 이야기에 얼마나 호기심이 발동했을지 상상해 보라. 그래서 애써 좀 더 알아보고자 했다.

“꼬마야, 넌 어디서 왔니? ‘네 집’이라니 그게 어딘데? 내 양은 어디로 데려간단 말이니?”

그는 말없이 생각에 잠기더니 내게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상자가 밤에는 집이 될 테니 잘 됐지 뭐야.”

“그렇고말고, 그리고 얌전하게 굴면, 낮 동안 양을 묶어 놓게 줄을 주마. 그리고 말뚝도.”

그 제안에 어린 왕자는 황당해했다.

“양을 묶어 놔? 참 희한한 생각이네.”

“하지만 묶어 놓지 않으면 아무 데로나 가서 길을 잃을지도 몰라.”

그러자 내 친구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어디로 간다는 거야?”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